

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

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(3월 3~4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베트남 3월 경제 동향

- 베트남 은행 23곳, 예금금리 인하
 - 약 1년간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수신 경쟁을 벌여온 베트남 은행권, 일제히 금리 인하 단행(만기별 예금금리 0.1~1%p 인하)
 - 앞서 팜 민 쩐 베트남 총리는 저금리 기조 유지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은행에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,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인상
 - 쩐 총리는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고 금리 인상에 나선 은행들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을 금융당국에 지시한 바 있음
- '25년 베트남 수출 목표 USD 4,540억으로 전년 대비 12% 성장 계획
 - 공상부는 올해 시장 개발과 수출 촉진, 수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솔루션을 개략적으로 담은 지침을 발표
 -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필 것을 산업계에 요구하는 한편, 기업이 생산계획을 조정하고, 이에 따른 신규 주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각 산업 협회에 해당국 정책 변경 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것을 외국 주재 각 무역사무소에 지시
 - 또한 공상부는 중동 및 할랄시장 등 신시장 개척에도 주력할 방침
- 베트남, 주요 교역국 무역수지 균형 총력
 - 팜 민 쩐 총리는 주요 무역상대국과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포괄적 대책 마련과 기존 자유무역협정(FTA)의 적극적 활용, 밀수품 원산지 둔갑 재수출 방지 대책 마련, 새로운 협상을 통한 시장 및 공급망 다각화,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상호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세금정책 검토 등을 각 부처 및 기관, 지자체에 지시

②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

- 베트남, 하이테크산업 인력 소득세 감면 추진
 - 재정부가 각계 1차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개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에 당과 국가의 목표 및 방향에 따라 특정 분야 기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용 명시
 - 또한 국비로 진행중인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에 한해 세금을 면제하고, 탄소배출권크레딧(CER)의 최초 양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과 그린본드(녹색채권) 이자 또한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
- 베트남, 과학기술 예산 최고 5%까지 확대 추진
 - 팜 민 쩐 총리는 제14차 당대회 경제사회 분과위원회 준비회의에서 전체 예산중 3~5%를 과학기술 분야에 배정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
- 베트남, 과학기술혁신법 초안 발표
 - 주요내용은 전략적 기술을 사용·이전하는 FDI(외국인직접투자)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과학기술 주요인력에 관사·차량 제공 추진 등
- 한국-베트남, 양국 외교부 장관 통화로 원전·인프라 협력방안 논의
 - 부이 탄 선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4월 16~17일 이틀간 하노이에서 개최예정인 제4차 *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소개하고 P4G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한국측의 참석을 요청
 - 조태열 장관은 원전, 대형인프라 등 분야의 호혜적인 협력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, 조 장관과 선 장관은 양국관계 발전 방안 및 한반도 등 지역·글로벌 문제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제2차 한-베트남 외교장관 대화 등 대면협의를 갖기로 함
- * P4G(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)는 정부·민간 참여 협력사업 지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SDGs 달성 가속화 이니셔티브

- 베트남, 미국 기업들과 USD 40억 규모 상품·서비스 구매 협약 체결
 - 총리 특사 자격으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응웬 홍지엔 공상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베트남-미국 기업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양국 경제·무역 협력 방안 논의
 - 양국 기업은 원유·가스 채굴, 석유화학 제품 수입 등에 관한 양해각서(MOU) 및 계약을 체결
 - 앞서 양국 기업은 항공기 도입, 항공서비스, 원유·가스 채굴, 석유화학 제품 수입 등에 관한 501.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, 현재 약 360억달러 규모 협약을 앞두고 협의를 진행 중
- 역대 최대 규모 미국 기업대표단, 베트남 방문
 - 미국-아세안기업협회(USABC)의 테드 오시우스 대표 겸 의장이 이끄는 미국 기업 대표단은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판 민 쩌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기업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
 - 이번 대표단은 보잉과 애플·인텔·코카콜라·나이키·아마존 등 약 60개사 대형 미국기업 임원진으로 구성돼 그동안 USABC 프로그램에 따라 베트남을 방문했던 미국 기업 대표단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, 에너지·하이테크·반도체·인공지능(AI)·항공·금융·통신·의료·식품가공·교육·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의사를 표명
 - 쩌 총리는 기술이전, 인재양성 강화, 디지털인프라 개발, 항공·철도·물류 등 주요 교통인프라사업 투자,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등에 대한 지원을 미국 기업 대표단에 요청했으며, 양국 간 새로운 교역 프레임워크 추진,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무역방어조치 미적용, 첨단기술 수출 제한 국가 목록에서 베트남 배제, 조속한 시장경제지위(MES) 인정에 미국 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

3 베트남 기타 동향

- 호치민시 국제금융센터 입지 낙점
 -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인프라개발계획에 따르면 국제금융센터는 투득시 지번 1-1~11 등 모두 11개 필지에 9.2ha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, 투티엠신도시를 넘어 1군까지 확장 가능성 있음
 - 정부는 연내 호치민시 금융센터 설립·운영할 계획이며, 향후 5년 내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센터로 발돋움시키는 것이 목표
 - 호치민시는 올초 금융센터 개발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호치민시 당서기가 이끄는 금융센터건설개발운영위원회를 출범
- 롯데글로벌로지스, 동나이성 콜드체인물류센터 착공
 - 롯데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 5.5ha 부지에 2.6ha 규모 최첨단 냉장보관시설을 갖춘 물류센터 건설을 시작했으며, 내년 상반기 중 가동 예정
- 빈그룹, 호치민-견저해양도시 개발 추진
 - 총 사업비 USD 90억 규모의 견저해양도시 개발사업은 해안매립지 (600ha)를 포함해 2,870ha 부지에 해안관광시설, 리조트, 스마트시티, 하이테크 서비스, 108층 규모 빌딩, 주거 및 호텔단지 등을 건설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'30년 완공 목표
 - 현재 구역계획과 환경영향평가, 타당서조사 등은 기승인됐으며, 이외 절차는 당국 허가 대기 중
 - 앞서 밝힌 총리는 빈그룹에 호치민시 중심부와 견저섬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투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
- 빈그룹, 호치민시-견저 연결 철도 투자 제안
 - 빈그룹에 따르면 PPP방식(BOO계약)으로 투자 추진
 - 총 연장 48.5km, 시속 250km 고속도시철도 프로젝트로 '26년부터 2년간 건설 후 '28년 개통 목표

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

① (베트남) 호치민시 편선녓 공항 제3여객터미널, 4월 중 완공 예정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호치민시 인민위원회
- (사 업 비) USD 4.3억 (VND 11조)
- (사업내용) 연간 여객수용 2,000만명 (베트남 최대 규모 국내선 여객터미널)
- (추진현황) '22. 착공 / '25.04. 완공 / '25.05. 공식 운영 예정

- (주요사항) 국내선 여객수송의 80%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항공 (Vietnam Airlines)과 비엣젯항공(Vietjet Air)이 신설된 제3여객터미널로 이전해 운영 예정
 - 제3여객터미널 완공 시, 현재 3,000만명 수준인 편선녓 공항의 연간 여객수용 능력은 5,000만명으로 증가
 - 편선녓 공항은 3터미널 개장으로 인해 국내선 승객들의 이동이 대폭 분산되면서 공항 내외부 교통 정체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, 호치민시는 3터미널 개장일에 맞춰 총 연장 4km의 Tran Quoc Hoan-Cong Hoa 연결도로를 개통할 계획

② (베트남) 빈즈엉성, 호치민 연결 전철 건설 추진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빈즈엉 인민위원회
- (사 업 비) USD 25억 (VND 64.3조)
- (사업내용) 총 연장 32.5km, 19개 역사, 1개 차량기지
- (추진현황) '25.3. 예비타당성조사 승인 / '27. 착공 예정/ '31. 개통 목표

- (주요사항) 빈즈엉 신도시 중심가 투저우뭇시부터 호치민시 메트로 1호선 수오이띠엔 버스정류장역까지 연결